

인쇄 '통합' 솔루션

DRUPA 2004를 주목하라



인쇄인의 올림픽인 DRUPA가 오는 2004년 5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다.

향후 인쇄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선보일 DRUPA 2004는 인쇄와 종이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동종업계 인물들과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과 시각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미래 시장을 겨냥한 투자에 필요한 믿을 수 있는 정보와 단단한 기반도 제공할 것이다.



● 미래로 이어지는 성공의 발자취

DRUPA가 출발한 지난 1950년도에 전시회 참가국은 10여 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참가 업체도 527개 사에 불과했다. 전시회 참가부스가 1천개사가 넘어진 것은 6번째 전시회가 지나서였다.

하지만 출범 50년을 맞이한 2000년 박람회 참가국은 첫 번째 대회 참가국의 5배에 해당하는 50여개 나라에 이르렀으며, 참가 회사도 1950여개 회사로 늘어났다.

첫 번째 DRUPA는 20만명의 방문객이 있었다. 1972년 새롭게 마련된 박람회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시회에는 26만 8천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다녀간 방문객만 늘어나는 것이 전시회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DRUPA가 독일이나 유럽을 벗어나 전 세계 인쇄인의 전시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람객 및 참가회사들의 글로벌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RUPA는 42만 8천명 이상이 방문한 2000년 전시회에서는 방문객 2명 중 1명은 독일 외의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으며, 이들 중 7만 8천 4백명은 유럽 외 지역에서 온 방문객이었다.

● 세계 최대규모 인쇄전시회

DRUPA 2004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프리프레스 및 프리미디어(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인쇄(기계, 장비, 액세서리), 제본, 마감(기계, 장비, 액세서리), 종이 가공 및 포장재 생산(기계, 장비, 액세서리), 자재, 소비재, 서비스 분야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전시관 별 전시 예정 품목 현황을 보면, 프리프레스 및 프리미디어 업체인 다니폰 스크린, 에스코 그래픽스, 휴렛 팩커드, 코닥 폴리크롬, 비오 등은 1, 3, 9, 16전시관을 사용한다. 인쇄 기계, 장비, 액세서리 등은 1, 4, 6, 7, 13, 15~17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업체들 이외에도 체록스나 자이콘 같은 세계적인 업체들도 자리를 함께 한다.

종이 가공 및 포장지 생산부문은 밥스트, 퀴버 페이퍼 링크, 빙클러-뒤네비어 등과 빈트필러 & 휠서 등의 전시 회사들이 전시관 6, 10~13, 16에서 첨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제본 및 마감 분야에서는 몰러마티니, 페락 등이 전시관



1, 6, 12~14, 16 등에 부스를 설치한다. 자재 및 서비스는 거의 모든 전시관에 널리 분산되어 있다.

● DRUPA 2004의 경향

디지털 작업으로, 인쇄의 전 과정이 통합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 목적은 주문의 전 과정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생산의 각 단계를 자동화하고 상호 연결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동향은 종합 솔루션의 발전이다. 인쇄기계, 종이 가공 기계,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 업체들이 단순히 기계와 제품만을 전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종합적인 솔루션이 부스를 가득 채울 것이다.

통합된 사고와 활동은 사용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업체에도 요구된다. 방문객들이 혁신의 바다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뒤셀도르프 박람회 회사는 보조 행사의 형태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전시 회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이나 워크숍을 통해 이와 관련된 활동을 펼칠 것이다.

● 워크숍 등 학술행사도

DRUPA를 주관하는 뒤셀도르프 박람회는 50년이 넘는 역사 상 처음으로 박람회와 병행하여 전문성을 띤 보조 행사를 치르게 된다. CIP4 컨소시엄, 독일 인쇄공업협회 등의 파트너 및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뒤셀도르프 박람회는 혁신의 홍수 속에서 방문객들이 주요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전문 보조 행사를 마련했다. 보조행사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일 인쇄 공업 협회가 주관하는 워크숍 형태의 컴퍼스 세션은 각종 현안을 다루며, 매일 두 시간 정도에 걸쳐 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2. 박람회 전 기간에 걸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첨단 기술이 라이브 또는 비디오로 소개된다.

3.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파크와 바로 옆에서 개최되는 다이내믹 다크먼트 파크는 소기업이나 후발 기업, 또는 모회사로부터 갖 독립한 신생 기업이 혁신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4. <도이체 드루커>가 뒤셀도르프 박람회와 협력하여 주관하는 하이라이트 투어는 몇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의 방문객을 안내하는 투어이다.

5. 독창적이고도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들도 마련돼 있다. 타이프 디렉터 클럽은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연구 성과 가운데 상을 받은 것들을 모아 전시한다. 인쇄 예술에 관한 라이프치히 워크숍 및 박물관은 인쇄 예술의 성과를 직접 보고 만질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뒤셀도르프 박람회에서는 64개 대표 사무소를 통해 10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상해, 북경, 싱가포르, 도쿄, 뉴델리, 브르노, 모스크바 등지에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 모국어로 DRUPA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막 6주전부터 DRUPA 디렉토리를 구입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박람회 현장에서 구입 또는 각국의 대표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조갑준기자)